

다양성 인정·배려하는 교육... 함께가는 미래 연다

19完 - 전문가들의 제언

광주일보의 심층기획시리즈인 '함께 열어요, 우리의 미래 (다문화가정 2세들의 꿈·희망·대안찾기)' 최종 편으로 광주·전남 및 해외 전문가들의 제언을 소개한다.

이들 전문가는 올바른 다문화사회 정착을 꾀하기 위해선 다문화 자녀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 정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또 교육 현장에서 단일 민족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 다양성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전남은 다문화 자녀가 1만명을 돌파한 만큼 이들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복지·고용 등 총체적인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전남의 경우 다문화자녀 5명 중 4명은 농촌에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교육과 지원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향후 다문화 2세들에 대한 정책의 틀이 문화적·인종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다문화 자녀들에게 '한국화'만 강요할 경우 자칫 이들의 정체성 혼란에 따른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전교생 43명 중 12명이 다문화가정 자녀인 화순 천태초등학교 학생들이 방과 후 운동장을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 이 학교는 다문화 자녀들을 아우르는 다양한 특별활동을 통해 다문화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 /화순=남영주기자 mjna@kwangju.co.kr

“단일민족 우수성 강조 벗어나야”

정규채 화순 천태초등학교장



“아이들에게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심어주는 것이 성공적인 다문화 교육의 첫 걸음입니다. 이제는 단일 민족의 우수성만을 강조하는 교육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화순 천태초등학교 정규채(60) 교장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우리들의 인식이 전환되고 다른 민족이나 문화, 인종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수용하는 자세를 가질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당당하게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이 많은 농촌지역 학교는 특히 다문화 가정 학생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일반 학생과의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는 특성화된 교육활동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교장은 또 “초등학교 시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은 물론, 다른 사람의 문화적 유산에 대한 이해를 발달시키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학생들에게 자신이 속한 단일 문화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편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다문화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장은 또 “어느 특정 대상만을 일방적으로 교육하지 않고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들을 통합적 차원에서 교육해야 한다”며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하며, 나아가 타문화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와 신념에 대해 성찰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존중하며 수용할 수 능력과 의식을 길러 당당한 한국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다문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문화정책 총체적 점검 필요”

방기혁 광주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장



“성숙한 다문화사회 진입을 위해서라도 다문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해보려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광주교육대학교 방기혁(48·교수) 다문화교육연구원장은 “정부 부처 간 정책이 중복되고 나열식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방 원장은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준비되지 않은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들도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문화가정 학생들과 같이 공부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다문화 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다문화 사회는 경제 발전과 사회 구조의 변화 등 복합적인 여러 요인에 의하여 급격하게 탈바꿈하고 있다”며 “그동안 순혈주의와 단일민족 의식에 젖어있던 우리에게 의식전환의 기회도 없이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숙한 다문화사회는 관련법 제정과 프로그램의 운영보다 다문화사회에 대한 구성원들의 긍정적 의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문화 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다문화의 수용 자세,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가짐, 모두가 하나임을 인정하는 공동체 의식, 글로벌 사회에 적합한 세계 시민 의식 등을 심어주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2세대 위한 맞춤형 교육 절실”

문왕철 순천외국인한국학교 대표



“다문화가정 2세들은 부모의 열악한 경제적 상황과 낮은 학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이들을 위한 별도의 교육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순천외국인한국학교 문왕철(54·순천매산고 교사) 대표는 “미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문직 부모들이 시간당 2000개의 단어를 구사하는 반면, 다문화가정 부모는 1300개 이하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문화가정 부모의 낮은 어휘력은 이들 2세의 학습 능력과 지능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전남지역 다문화가정 2세 10명 가운데 8명은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보통 이들의 부모는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다문화가정 2세 역시 성적부진과 학교 부적응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문화가정 2세에 대한 열악한 교육 상황은 단순히 ‘학습부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대화 단절로 인한 가족간,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표는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다문화가정 2세들을 지역별, 나이별, 학력별로 구분한 뒤 각 단계에 맞는 학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표는 “유아기 언어습득은 언어 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다문화가정 2세들을 위한 언어 발달 학습과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다문화가정 2세들의 교육에서 일선 교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다문화 자녀 개개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함께 교육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전했다.

“다름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교육”

케리 컬리 LA찰스킴초등 교장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다문화·다민족의 다양성을 ‘틀린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하도록 교육시켜야 합니다.”

미국 LA 찰스 김 초등학교(Charles H. Kim Elementary School) 케리 컬리(Kerry R. Kehrlay) 교장은 “미국 사회에서 유색 인종의 삶은 비주류로 고난의 연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나 자신 또한 백인우월주의 속에 차별을 받는 이들의 상처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나는 삼 형제 중 막내인데, 큰 형의 외모가 다른 형제들과 달리 흑인과 비슷해 적잖은 고통과 차별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문화 2세에 대한 편견은 다름을 인정하는 교육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다문화 선진국인 미국 역시 다문화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대규모 소외 사태 등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은 다문화 2세들을 우리 사회에 무작정 동화시키기보다는 이들의 언어·문화를 지켜주고 존중하는데 교육 목표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도 이미 다문화 사회에 진입했다”며 “더 이상 다문화문제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이웃들이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아 작성됐습니다.

Merry Christmas

크리스마스의 특별한 행복! 히딩크호텔과 함께하세요!

Special Events

- event 01 객실 | 전 객실 50% 할인
- event 02 연회장 | 칠순연, 돌잔치, 각종세미나, 웨딩패키지 및 숙박권증정 (음향시설, 빔프로젝트, 노트북대여)
- event 03 런치스페셜 | 해물지리탕, 추어탕, 육개장

한국이 낳은 동아시아 최고의 음악가 정율성선생 (1914~1976)

중국인구 40%이상 (6억이상) 중국의 위대한 음악가이며 민족주의자이며 항일운동가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인구 80%이상 (10억이상) 정율성이 작곡한 노래 최소 1곡이상 알고 있습니다.

중국 3대 음악가중 1명으로 추앙

히딩크관광호텔은 음악가 정율성선생 탄생지입니다.

주/요/작/품 연안송, 팔로군군가, 팔로군행진곡(중국 인민해방국가 지정), 연수요, 동해아부 재벌가 흥안령에 눈꽃날리레, 푸른조곡 별노래, 우리는 행복해요, 5악기극(망부운), 오락동시사등 독창, 중창, 소합창, 동요, 뮤지컬, 오페라등 360여곡 작곡

www.hiddinkhotel.com 문의전화 (062)227-8500